

물가관계차관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모두발언(6.16)

- 지금부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%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,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,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- 이에 정부는 에너지·먹거리 등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체감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습니다.
- 우선,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(6→8월말)하겠습니다.
-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, 할당관세, 추경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.
-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6~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.
- 돼지고기, 닭고기,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~50% 할인하고, 할인한도도 2배로 확대(주 1→2만원)하겠습니다.
- 7월부터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하고,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대폭 확대(0.4→1만톤)하겠습니다.
-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(144억원),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(60억원) 등 물가안정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.

○ 계란, 닭고기 등 가격·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춤형 대응을 하겠습니다.

- 계란은 과도한 산지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.

- 브라질산 닭고기는 6.21일 지역화 완료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하고,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천톤을 국내 도입할 예정입니다.

○ 식품·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과일카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(6→12월말)하고,

- 중소·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'국산'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.

- 이러한 애로해소 지원과 함께,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을 최소화, 인상시기 이연,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 최소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.

□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,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.

□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